

제 3장 아나키즘과 여성주의: 엠마 골드만 (Emma Goldman) I

◆1교시 : 엠마 골드만 1

▲엠마 골드만에 대한 개략적 설명

엠마 골드만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주류 페미니스트들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당시에 유행하던 여성주의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남성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받았고요. 생애에서 오해,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동료 아나키스트들, 같은 진보 진영에 있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엠마 골드만을 공격했죠.

엠마 골드만이 격렬한 활동을 좀 쉬면서 자서전을 쓰거든요. 그 제목이 리빙 마이 라이프 (living my life),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여력이 되면 하고 싶은데, 나중에 사회운동을 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어도 비교적 쉽고,

흥미진진한 사람이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소개가 없었는데, 책은 ‘저주받은 아나키즘’인데, 잡지에 썼던 글들 모아서 낸 것인데, 아나키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체 게바라, 트로츠키, 레닌과 비교해봐서도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열정, 실천적인 활동을 비교해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더 뛰어났죠. 엠마 골드만이 저주를 받았더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은, 성공한 혁명을 보질 못했다는 거죠. 레닌, 트로츠키, 체 게바라, 마오쩌둥, 호치민은 혁명을 성공해서 추앙을 받았는데, 엠마 골드만은 조국이 없었죠.

계속해서 강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고 다른 나라로 가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점에서 비극인데, 자기 사상을 잃지 않고 쫓다보면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듯 해요.

▲엠마 골드만

엠마 골드만의 삶에 대해, 같이 동지로 연인으로 살았던 알렉산더 버크만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엠마 골드만의 삶과 사상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국어로 나온 저작이 ‘저주받은 아나키즘’, 중요한 분야가 나와 있는데, 1860년 태어나 1940에 죽었으니까 19중반부터 20세기 중반부터 살았다고 볼 수 있고, 아나키즘이 처음 생긴게 18세기 초에서 중반 정도라고 본다면 엠마 골드만이 책을 쓰거나 잡지를 펴내고 꾸

준히 강연활동을 하고 지속적인 작업을 하면서 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전 아나키스트들이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해요.

감옥의 문제, 여러 번 투옥이 되었는데, 무신론과 아나키즘과 연관시킨 글들이 나와있고, 언론의 자유, 국가의 탄압에 맞춰서 평생을 주장했던 것인데, 군사주의의 반대부분이에요. 아나키즘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19세기 중반에는 제국주의가 발생하기 이전이었고, 군사주의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게 제 1차 세계대전 1914년 발발, 1939년에 발발한 제 2차 세계대전 그 사이를 보내면서 군사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열정적으로 비판하게 되죠.

여성주의와도 연관이 되고, 결혼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른 아나키스트, 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아주 유명한 아나키스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결혼제도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장하고 밝히는 사람은 엠마 골드만이 처음이었어요.

자유연애, 연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자유사랑이 더 좋은 개념일 수 있는데, 자유 사랑을 옹호하고 실천하고 아나키즘과 결합시켰던 사람이예요. 지금 보면 뛰어난 혜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나키즘의 사상, 실천내부에 포함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풍부하게 만들었죠.

그 전에는 정치적 문제, 개인과 국가의 문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코문의 구성이 아나키스트들의 과제였는데, 빠진 측면을 엠마 골드만이 평생에 걸친 활동으로 빈자리를 메꿀 수 있었죠.

뛰어난 아나키스트이고, 제가 담고 싶은 사람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1860대 태어나서 불우한 시절을 보냈는데, 가족이 억압적인 분위기 었어요. 아버지 경우, 딸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하고 제한을 가했죠.

▲엠마 골드만의 가정

엠마 골드만이 태어난 곳이 리투아니아, 제정 러시아 시대였고, 유태계 집안에서 태어났죠. 거의 독일과의 국경이죠, 모어(母語)라고 하면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어였어요. 모국어는 러시아어가 되겠지만, 1869년에 태어났네요. 어머니의 경우 엠마 골드만과 당시 유태인들이 겪었던 비슷한 것들을 겪었다고 해요.

10대 중반이 되면 가족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혼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엠마 골드만의 어머니도 15살 때 결혼을 해서 헬레나와 레나가 태어났죠. 엠마 골드만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가족사가 복잡한데, 가족사를 알아야지 이런 사상을 갖게 되었나를 알 수 있게 되요.

어머니가 결혼한 남편과 딸 둘을 낳고 남편이 일찍 죽고, 재혼한 사람이 엠마 골드만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마초적인 사람이죠. 엄마가 재혼하고 임신한 사실을 들었을 때 분명 아들일거다. 왜냐, 아버지는 딸이 태어나봤자 우리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

딸들한테는 제대로된 교육을 시키지 않았죠. 초등학교 이후 가사일을 배우고 지정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게 여성의 역할이라는 교육을 하죠. 어렸을 때부터 반역의 기질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끔찍한 어린시절을 보냈을까. 구타, 요리를 배워서 시집이나 가지, 무슨 공부를 하려느냐.

책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보통 감옥에 갇히거나 몸이 안좋아서 강연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할 때 스스로 독학을 해서 여러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연극부분. 시간이 날 때마다 취미를 느꼈죠.

의학부분도 혼자서 공부를 해서 간호사로 오랫동안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 간호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재봉틀 기술도 배웠고,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었고,

▲엠마 골드만의 주위 환경

제정 러시아에 속한 조그만 소도시에서 살면서 농노들이 영주의 채찍을 맞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뇌리에 오래 박혔다고 하죠. 러시아에서는 봉건제도가 있었죠. 그게 본질적으로 노예와 차이가 없었죠. 유럽에서 19세기에 법률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지만 우리가 보던 신분적 예속상태, 대부분의 서민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들이 노예와 다를 바 없었죠.

자유인의 신분이지만 자유가 없는, 도망치다 잡히면 죽을때 까지 맞고, 또 농장에 갇혀서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니깐요, 그런 모습들이 큰 충격을 주었구요, 학교 다닐때, 밝힌 것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때 자로 손을 맞고 그랬는데, 1870년 러시아에서 상페테르부르크, 다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넌 말을 안듣는다고 때린다고 하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게 아나키즘을 받아들이게 되는 조건이 되었었구요

그 당시 러시아에서 커다란 사건, 제정러시아 짜르라고 하는 황제, 알렉산더 2세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부분이, 민중속으로, 농민속으로 들어가자, 브나드로 운동이라는 것이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들 사이에 퍼지게 되고요, 허무주의 경향, 아나키즘과도 연관이 됐었는데, 허무주의도 아나키즘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요, 박열도 그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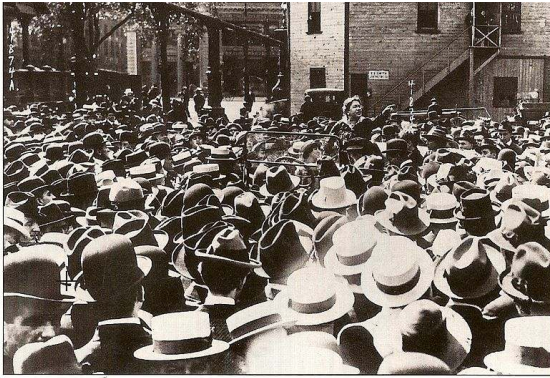
니힐리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대예요. 아나키즘 경우는 구체적으로 정부라든가, 억압적 권위, 신, 공장의 사장, 구체적 대상이 있어요. 천황, 황제, 대통령,

허무주의에는 구체적, 대상이 없고, 온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졌다는 거죠. 삼라만상자체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연관되는 지점들을 찾았겠는데, 허무주의자나 아나키스트들이 암살을 행동방식으로 삼았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고요, 암살이라는 것이 행동방식이 되었을 경우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보다는 테러리스트로 오인받게 하는 경향이 되었었는데요.

◆2교시 : 엠마 골드만 2

▲미국으로의 이민



엠마 골드만이 러시아에 퍼져있던 허무주의 경향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밝히지 않았지만, 10대 중반이면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결정적 계기는 소설이에요. 체르니셰프스키가 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설이에요.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소설인데, 주인공 세라가 나오는데, 억압적 가족을 주인공을 가출을 해서, 주변사람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느질, 미

싱일, 공동체를 해서 독립적인 것이 나오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해방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죠.

엠마 골드만이 그런 부분에 용기를 얻었죠. 러시아 사회, 가정, 아버지의 폭력, 주변 사람들, 학교, 떠날 생각을 한거죠. 15, 16세, 당시 미국이 기회의 나라였죠. 유럽 이민자들이 19세기 중반이후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럽,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경제체제가 재편되고 있었는데, 대규모 농장중심, 플랜테이션, 북부는 대규모 산업, 자본주의 태동, 자동차, 철강회사,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산업자본주의를 일으키면서 대도시 하층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어 들어가는 거구요.

미국 내에서 노동자들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기회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그 당시부터 있었던 이데올로기였죠. 유럽 각지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었죠.

엠마 골드만의 언니, 헬레나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자,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둘째 언니가 미국인과 결혼해서 뉴욕주에 살고 있어서 그 곳으로 가자. 당연히 집안에서 반대했죠. 엄마의 경우도 아버지의 관계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를 못해준 듯 해요. 주로 의지했던 언니, 헬레나였는데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니 자기도 따라갔던 거죠.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자살하겠다고. 초강수를 둔거죠.

당시 러시아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수탈이 끝도 없이 심해져서 못참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런 모순들이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엠마의 부모들이 알았다, 가게 되면 우리도 따라 가겠다고 하죠. 그게 1886년 무렵이고요,

▲미국에 싹튼 ана키즘

헤이 마켓 ана키스트들, 미국 노동운동을 이끌고, 지휘했던 루시 파슨스를 봤는데, 우리가 노동운동하면 맑스주의, 사회주의라고 떠올리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조건이 달랐죠. 왜 노동운동 했던 사람이 ана키스트였냐, 미국에서는 처음 사회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ана키스트들인데, 유럽은 다른 사회주의 전통이 있었고, 19세기 초에 프리에(Fourier), 오웬(Owen) 이런 사람이 프랑스나 영국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운동을 했고, 맑스에 의해 과학적 사회주의로 변화했다는데,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산업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던건 ана키스트들이었어요. 루시 파슨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20세기 초반, 190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운동을 하기에 미국이 좋은 장소였죠.

기본적으로 유럽과는 달리 억압적 분위기가 덜 했다. 경제가 부흥하던 상황,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던 셈이죠. 유럽에서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는 없었고, ана키스트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믿고 있는 생각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이 16세기 발견이 되게 아니지만, 미국 백인들 사이에는 발견된거죠. 19세기 사상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바로 전파가 되요.

아나키즘을 활동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전파했겠고, 미국이라는 상황에서는 ана키스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듯 싶어요. 어떻게 노동운동이 미국에서는 ана키스트들로 되었나는 모르겠어요

▲아나키스트와 맥킨리 대통령 암살

상황은 많이 변하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몇 가지 ана키스트들이 잘못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 사회 역사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국제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루시 파슨스가 나중에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1901년에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데, 암살자가 레온 출고츠(Leon Czolgoz), 그 사람도 ана키스트고, 테러리스트고, 엠마 골드만의 사주를 받아 암살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ана키스트 익스클루전 액트(anarchist exclusion act) ана키스트를 추방시키는 법률, 추방이나 배제, 감옥에 가두거나 외국에 추방시키는 법률 통과시킨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거죠. 9.11사건 후 애국자 법(patriot act)을 통과시켜서 균형있는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거죠.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침략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상의 자유를 줄 수 있느냐죠. 똑같은 법률이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 만들어졌죠.

광풍이 불어오게 되요. 에드가 후버라는 사람이 빨갱이 사냥을 하죠. 맥킨리 대통령 암살에서 비롯되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 기간, 1917년 러시아 혁명,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패닉상태가 되었죠.

대상이 ана키스트들, 테러리스트들로 국한되었다가 좌파 사회운동 세력들을 포함하게 된 거고, 미국의 사회운동은 씨가 마른거죠. 에드가 후버의 빨갱이 사냥 때문에 엠마골드만이나 알렉산더 버크만이나, 자기 고향 러시아로 쫓겨가죠. 그게 1919년이죠.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혁명후 내전이 벌어진 상황, 볼셰비키가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우파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 맥킨리 대통령 암살로 인한 ана키스트들의 고립 전략

아나키스트들의 고립전략이 다른 사회운동 세력들로 지탄받게 된다. 알렉산더 버크만이나 카네기 제철회사, 노사분규라고 하는, 파업중인 사람들을, 용역깡패들, 조직 폭력배를 불러서 패게 하죠. 10시간 정도 서로 패싸움이 있었죠. 수십 명이 죽게 되죠. 그것을 지휘했던 사람이 -카네기는 유럽에 가 있고- 프릭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었죠. 동원해서 재네들 끌어버려.

그 때 파업중인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알렉산더 버크만이 저런 놈을 그냥 두면 안되겠다해서 제거계획을 세우죠. 사장실로 들어가 프릭한테 총 3발을 쏘는데, 죽지는 않아요. 총격사건이 발생하니까 사장을 수행하는 비서가 달려와 알렉산더 버크만을 두들겨 패서 경찰에 넘기죠. 살인 미수로 2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고, 14년을 살고 나오죠.

아나키스트들이 영향력을, 좌파 사회운동내에서 영향력을 잃게 만든 요인이죠. 알렉산더 버크만이나 엠마 골드만 같은 사람들은 ана키즘 운동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데, 제일 유명한 인물들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은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다른 ана키스트들이 엠마 골드만한테 물었죠.

엠마 골드만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알렉산더 버크만의 석방, 규명운동을 하지만 그런 언급 때문에 온건파들 사이에 고립되게 되는 거죠. 엠마 골드만이 가장 힘들었던게, 존 모스트같은 사람, 유명한 ана키스트인데, 그들한테 큰 비난을 받는 상황을 겪게 된거죠.

엠마 골드만이 미국으로 건너왔을때 1886년 헤이마켓 ана키스트들의 폭동사건, ана키스트들의 지시로 1887년 4명이 교수형을 당하는 사건 이후, 당시 엠마 골드만은 뉴욕에 있었는데 그 상황을 전해듣게 되죠. ана키스트들이 대의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요. 권위에 대한 저항을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있죠.

◆3교시 : 엠마 골드만 3

▲엠마 골드만과 알렉산더 버크만의 만남

엠마 골드만이 뉴욕주의 로체스터라는 시골에서 살다가, 공장에서 미싱사로 처음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되고 자기가 아나키스트로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고 뉴욕시로 가게 되죠.



미국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급진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뉴욕시에서 어디로 가야되느냐, 그들이 자주가는 카페에 가게되죠. 일화는 많이 알려진 일화인데요.

나이는 한 살 차이구요. 둘 다 아나키 활동을 평생해오면서 처음에는 연인, 동지, 인간적 신뢰를 주고받는, 엠마 골드만은 자유 사랑free love을 옹호했고, 둘 사이에 엠마 골드만이 다른 연인이 있었던 시기, 결혼을 했던 시기, 알렉산더 버크만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연인 관계를 유지했죠.

처음 만나게 되는 사건이, 첼바왐바,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그룹인데, 아나키스트들이죠. 그 중 하나가 ‘엠마가 알렉산더를 만났을때’가 나와요. 엠마 골드만이 카페에 가니까 알렉산더 버크만이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엠마 골드만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려는 것을 알렉산더 버크만이 딱 손을 잡아줬죠. 그러니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줬다. 그럼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줄 때가 있을거다.

인터넷에서 구해서 들어볼 수 있다. 노래 제목이 When alexander met Emma이죠. 열정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활동을 하게 되죠. 정치가, 권력자들에게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들이죠. 알렉산더 버크만의 경우 중요한 활동시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엠마 골드만이 혼자 남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엠마 골드만의 미국에서의 삶

엠마 골드만은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조직, 선동, 강연, 이런 것들, 집필을 10년 이상을 하면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죠.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엠마 골드만이 탁월한 연설가인데, 수많은 말들 중에, 책으로도 쓴게 있는데,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건 내 혁명이 아니다’ 손으로 쓴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데, ‘춤을 출 수 없는 혁명은 혁명이 아니다’등도 있고, 유명한 구절이어서, 한국에서는 그 책 제목이 어떤지 모르겠다.

아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다 첼바왐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저와 약간 재밌는 논쟁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혁명은 거기에 맞춰 내가 춤을 출 수 있는 것, 그런 종류의 혁명을 원한다. 누가 지도를 하거나, 고리타분하거나, 그런 것은 진짜 혁명이 아닌거

죠.

엠마 골드만 이전 ана키스트들은 그들의 사상이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지점에 오지 않았고, 이념적인것, 철학적인 것이 많았죠. 나와 개인, 자본, 국가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엠마 골드만 처럼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따른 가족이야기, 자유, 사랑 이야기들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죠.

▲엠마 골드만의 연설

미국이 1차 세계 대전을 참전하면서 징병제를 도입하죠. 미국에 거주하는 21세부터 30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은 국가에 등록을 해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주민등록제가 있어서 따로 등록을 안해도, 군대를 가게되죠. 엠마 골드만이 징병제에 반대하죠. 징병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2년간 갇히죠. 알렉산더 버크만이 감옥에서 나와서 같이 활동하던 1910년대 이후의 일이죠.

알렉산더 버크만이 감옥에 있었던 시기에, 이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건 내 혁명이 아니다’ 은 엠마 골드만이 나중에 미국에서 추방되어 태어났던 러시아로 가게 되는데, 그때 볼셰비키가 노동자국가를 만들었는데, 볼셰비키가 혁명을 지도했는데, 러시아 전역에서 농민이든, 노동자든 이렇게는 못살겠다는 것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시기였고요.

엠마 골드만이 미국으로 갈때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징병제 반대를 해서 감옥에서 나온 후 러시아로 추방된 후 러시아인 드림이 있었죠. 거기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나라다, 지배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러시아로 가게 되죠. 러시아로 가서 레닌과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가는 곳마다 유명한 활동가여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게 되는데, 영국으로 가면 버트란트 러셀이 맞이해주고, 몇 년 동안 1919년 러시아로 가서 직접 경험한 것을 보고 환멸을 느끼죠. 이 부분은 나중에 책으로 묶어서 나오죠. ‘러시아에 관한 나의 환멸’이라는 책으로 나오죠.

엠마 골드만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글들을 쓰게 되는데, 편집자는 엠마 골드만의 의도와는 달리 러시아 혁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도 되었죠. 노동자 국가가 권력자들 사이에는 불안하죠.

엠마 골드만이 그런 글들을 쓰니까 이용당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의 좌파운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조선일보같은 경우 그것을 이용하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엠마 골드만도 비슷한 경우였지 않을까. ‘러시아에 관한 나의 환멸’이 충분히 우익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있어서, 엠마 골드만이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이지 마라. 했는데, 출판사와 계약에서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인세로

생활을 해야하므로 어쩔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엠마 골드만이 했던 말이, 그때 노동자들이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었을 때 하도 굶주리니까, 사장한테 빵을 달라고 해라, 그 자들이 빵을 안주면, 일자리를 달라고 하라, 일자리를 안주면 힘으로 뺏아라, 하게 되죠. 열화와 같은 반응이 돌아오니 미국정부에서 가만 놔둘수가 없죠. 선동을 일으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엠마 골드만에게 폭동 선동죄로 감옥에 1년간 잡아넣고요.

당시에는 1890년대, 한창 열성적으로 연설순회, 연설여행을 할 때, 잔다르크가 살아왔다. 미국의 잔다르크란 별명을 얻게 되죠. 서민들의 영웅이었죠. 연설을 통해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피임과 여성운동

엠마 골드만의 경우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데, 피임이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죠. 1800, 1900년대까지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종교적 혹은 국가의 많은 인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죠.

사실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구를 재원으로 보죠. 우리가 꾸준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야 지배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죠. 권력자들이 출산을 감소를 우려하면서 갖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인구가 늘지 않거나 혹은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고령화가 되면 국가가 써야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돈은 늘지 않기 때문이죠.

권력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들이 보충되어야 체제가 유지되죠. 좀 더 노골적으로 한국의 경우 어떤 나라든 인구 조절 정책을 펴죠. 인구가 부족할 때는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구를 늘리고, 인구가 많아 국가의 부담이 커지면 줄이고, 국가가 통제를 하는거죠. 개인의 사생활까지 개입하는 거죠.

엠마 골드만이 피임이나 결혼제도, 자유, 사랑을 옹호하면서 국가가 간섭하고 법률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하고, 여성에게 자기 몸을 결정할 결정권이 있다는 말을 했고,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 그룹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참정권을 얻는 것이었지만, 거기에 당연히 이슈가 제한되지 않았어요.

참정권을 얻는 것은 아나키즘 입장에서는 이해하거나 같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성의 전반적인 권리는 당연히 아나키즘적이죠.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없애고 그렇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나키즘이라면 엠마 골드만은 아나키즘이죠.

피임, 여성의 결정권, 다른 아나키스트가 소리높여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적 환경, 남성이라는 한계, 엠마 골드만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나키즘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피임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요. 2년 동안 감옥에서 보냈죠.

